

시원한 국물, 여행의 피로 말끔히 씻어줘 하동 재첩국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남 구례와 마주보고 있는 하동은 예로부터 수려한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재첩을 비롯해 차밭, 화개장터, 쌍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글 · 사진 | 전기환



쌍계사 가는 길

어느 산사와 마찬가지로 쌍계사 가는 길은 매우 운치가 있다. 쌍계(雙溪)와 석문(石門)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를 지나 계류를 따라 오르면 우렁찬 물소리가 울려 퍼진다. 또 좌우로 우거진 깊은 숲은 산사의 정취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쌍계와 석문이란 글씨는 최치원이 지팡이 끝으로 쓴 글씨라고 전한다.

삼신산 쌍계사라는 현판의 일주문을 지나 곧장 오르면 천왕문을 지나 팔영루, 대웅전, 삼성각 등의 전각들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각들이 모두 일직선상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팔영루는 범패음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원래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2년(722) 의상의 제자 삼법선사가 당나라 육조 혜능대사의 정상(頂相)을 모시고 봉안하면서 옥천사(玉泉寺)라 하였다.

이후 문성왕 2년(840) 진감선사가 중창하고 정강왕 때 쌍계사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크게 소실되었다. 인조 10년 벽암스님에 의해 중건된 이래로 오늘에 이

고 있다.

진감선사가 중창할 때 중국으로부터 차 종자를 가지고 온 차를 지리산 주변에 심은 것이 오늘날 지리산 아생차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현재 쌍계사에는 진감선사 대공탑비 등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귀중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국보급 문화재 준비

진감선사 대공탑비는 신라말의 명승 진감선사 혜소의 덕을 기려 세운 탑비로 고운 최치원이 비문을 짓고 쓴 것이다. 전체 높이 3.63m, 비신높이 2.13m, 너비 1.035m, 두께 22.5cm, 두께 22.5cm이다. 대웅전 마당에 세워져 있다. 국보 제 47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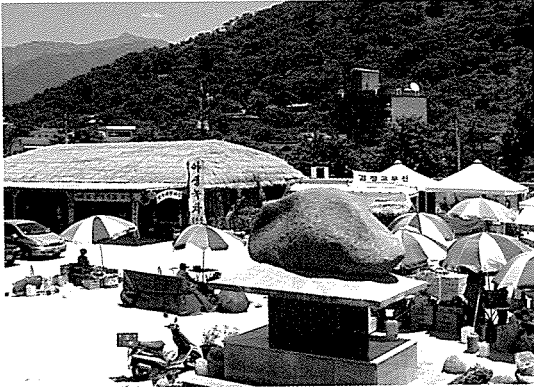
쌍계사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불일폭포는 지리산 10경에 속한다. 높이 60m, 폭 3m의 제법 규모가 큰 폭포로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룬다. 쌍계사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하동 쌍계사는 우리 나라 차 역사와 깊은 인연이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흥덕왕 3년(828)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차나무의 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 줄기인 쌍계사 인근에 차를 처음 심었다고 한다. 그 후 진감선사가 차를 번식시켜 차의 일반적 보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하동 화개장터 입구에서 쌍계사를 지나 신흥까지 장장 12km의 산야에 아생의 차밭이 있다.

화개장터

화개장터는 유행가사의 노랫말처럼 경상남도 와 전라남도

▼ 화개장터



를 이어주는 곳으로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5대 시장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은 관광지가 돼버려 옛 모습이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옛 명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화개장터에는 국밥집을 비롯해 도토리묵, 재첩국 식당, 주막 등이 마련돼 있어 주말이면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찾아 제법 활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산마루이나 녹차 등 지방 특산물도 거래되고 있다.

특히 봄철이면 화개장터에서 쌍계사에 이르는 10리 벚꽃길은 아름답고 화려한 벚꽃 터널이 펼쳐져 전국으로부터 수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한다.

하동의 별미 재첩국

하동의 별미로 잘 알려진 재첩국은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섬진강에서 나는 재첩으로 국을 끓인 것이다.

원래 재첩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사는데 모래가 많은 사질 토양에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좋은 재첩이 난다. 그래서 바다에 가까운 하동 재첩이 유명한 것이다.

하동에서는 갯조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하동 일대 어느 곳에서나 재첩국을 맛볼 수 있다.

재첩은 원래 물과 재첩을 끓이고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호에 따라 된장을 풀고 부추를 넣어 끓이기도 한다. 완전히 끓이면 푸른색을 띄는데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사실 시원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깊은 맛이 있는 것 같다.

또 재첩은 밤새 숙취로 고생한 사람들의 속을 풀어주는 해장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재첩이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메티오닌과 미네랄들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므로 간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 및 소화 기능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

▼ 차시배지



실용정보

☞ 전통차집

쌍계사 주차장 옆 전통차집 녹향(055-883-1243)에서 지리산 수제차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쌍계사 경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차집에서도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다. 녹향에서는 지리산 야생차로 만든 수제차를 판매하기도 한다.

쌍계사 입장료 어른 3,400원, 주차료 소형 4,000원, 대형 6,000원, 쌍계사 증무소 ☎055-883-1901

☞ 재첩전문식당

하동 시가지와 섬진강변의 여러 식당에서 재첩국을 맛볼 수 있다. 재첩국은 5,000원. 또한 재첩을 구입하려면 섬진강물산(055-883-8886), 섬진강신비영어조합(055-883-3698), 섬진강재첩영어조합(055-883-6996)에 문의하면 된다.



☞ 교통

하동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구례방향으로 달리다 화재장터를 지나 1023번 지방도로 옮겨 약 6km지점에 위치한 다. 하동에서 쌍계사행 시외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40분 소요된다.